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바라봅시다

(히 11: 1 - 2)

우리는 오늘 ○○○님을 추모하며, 함께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추도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을 따라서 산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기록하고, 조상들의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일을 기록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훌륭하게 기록하고, 상대방에 있는 조상은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분의 후손이라고 자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조상들의 일을 반추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삿갓으로 유명한 김병연은 반란군에 대해서 타도하는 글을 잘 지어서 과거에 급제했지만, 그 반란군이 자기 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상을 욕한 자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삿갓을 쓰고 유량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미화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상을 비판했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조상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후손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은 조상들의 삶을 버리고, 믿음대로 산 조상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의 추도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자손들과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떠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그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도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갔던 고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이,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상이더라도 믿음 없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후손들의 얼굴을 더럽히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더욱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